***PRESS INFORMATION***

|  |  |
| --- | --- |
| **보도 일시** | **2023. 11. 2. 배포 시부터 보도** |
| **사진 설명** | LS전선아시아 베트남 생산법인 전경 |
| **문의** | **강철 차장(02-2189-9607, 010-9447-7079,** [**ckang@lscns.com**](mailto:ckang@lscns.com)**) / 뉴스룸(**[**http://news.lscns.com**](http://news.lscns.com)**)** |
| **LS전선아시아, 3분기 영업이익 ‘분기 사상 최대’**  **■ 분기 영업이익 첫 100억원 돌파, 영업이익률 분기 최고치 6.6%**  **■ 초고압 케이블 유럽 수출 확대가 실적 견인**  **■ 베트남 제8차 전력 개발 계획, 글로벌 기업 생산기지 이전, 해저사업 진출 등 매출 확대 기대**  LS전선아시아가 올해 3분기 11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,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2일 밝혔다.  작년 동기 94억원 대비 약 18% 증가했다. 영업이익률은 분기 최고치인 6.6%다. 약 2~3% 수준인 국내 전선업계 영업이익률의 2배가 넘는 수치다.  회사측은 베트남 생산법인 LS-VINA의 고부가가치 초고압 케이블의 유럽 수출 확대가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.  매출은 1,675억원으로 전년 1,943억원 대비 13.8% 감소했다.  회사 관계자는 “매출은 베트남 내수 경기의 느린 회복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”며 “지난 5월 발표된 베트남 제8차 전력개발계획과 글로벌 기업 생산기지의 베트남 이전 등에 따른 대형 프로젝트 수주로 올 4분기에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  LS전선아시아는 고부가가치 초고압 케이블을 생산하는 베트남 1위의 전선업체다. 최근 페트로베트남(Petrovietnam)의 자회사인 PTSC와 베트남을 비롯, 아세안 국가에서 해저케이블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친환경 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. | |